해군기지 군사구역 다시 수면위로

해군, 최근 도에 공문 발송… '해상방어에 취약' 명분
도, 불가 입장 회신… "크루즈 수역·입출항로 안돼"
해군기지전대 "실무진과 긴밀한 협의 진행할 예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해역 전체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전대가 최근 제주도에 공식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지난 4일 제주 해군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협조 공문을 제주도 안전정책과에 보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화랑훈련·을지연습을 진행한 결과, 해상 방어 분야가 취약해져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에 부서 간 협의를 요청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민간인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8일 회신을 통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안전정책과의 업무도 아닌데다, 해군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향후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문 추가 발송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실무진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2016년 2월 16일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된 후 같은 해 6월 22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제주도와 해군은 2017년 5월 25일까지 3함대 사령관과 제주도 정무부지사와의 면담 등 총 10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끝내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채 협의는 마무리됐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육상(0.44㎢)을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안과 해상(0.73㎢) 전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해군의 '육상 안'에 동의하면서도 '해상 안'에는 반대했다. 크루즈 부두 인근 수역과 입출항로·선회장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해상이 모두 제한보호구역이 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시설 내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등이 모두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구역으로 지정해 통제하는 것보다 공동사용협정서에 명시된 사진촬영·녹화 금지 안내방송 등 이행사항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어려워지고, 민항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수용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크루즈선 부두 인근 수역과 입·출항로, 선회장은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내용은 국방부와 국회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17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고 윤춘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영결식에서 의원들이 묵념하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서민의 벗"… 고 윤춘광 도의원 영결식

어제 제주도의회장으로 엄수

고(故) 윤춘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영결식이 17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제주도의회장(葬)'으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장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도의회 전현직 의원, 도내 기관장 등이 참석해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과 약력 소개, 조사(의장), 추도사(도지사, 교육감), 고별사(유족대표), 추모시 낭송, 생전영상 방영,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석 의장은 조사에서 "고 윤춘광 의원은 40여년 민주화 운동 외길을 걸어온 민주투사였고, 합리적이고 온화한 의회주의자로 관록과 인품을 갖춘 모두에게 존경받는 정치인이셨다"고 회고하며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품으셨던 큰 뜻 반드시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추도사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며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제주를 꿈꾸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추도사에서 "고인은 어둠의 시대 한 줄기 희망의 햇살이었고, 엄혹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이끈 한 줌의 따뜻함이었다"며 애도했다.

고 윤 의원은 지난 13일 숙환으로 향년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장지는 서귀포 추모공원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성산읍 자연장지 개장
22일부터 공설묘지 내

서귀포시 성산읍은 자연 친화적인 성산읍 자연장지를 오는 22일부터 개장해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성산읍 자연장지는 서귀포시 동부지역 장사시설 확충사업 일환으로 기존 성산읍 공설묘지 부지에 7000기를 안장할 수 있는 8850㎡의 잔디장으로 조성됐다.

자연장지 사용기간은 40년으로 사망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도민인 경우 10만원, 도외인 경우 20만원의 사용료가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에너지공사 판매관리·안전조치 '소홀'

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관련자 4명 '주의' 요구

제주에너지공사(이하 공사)가 판매관리 및 안전조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실시한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2016년 3월 이후 추진 업무 대상)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공사는 풍력발전단지 연계시설인 허브변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면서 방화벽 설치 등 화재발생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소홀히했다.

도 감사위는 감사기간 중 현장을 확인한 결과, ESS용 배터리와 154 KV 송전선로가 같은 공간에 설치돼있으면서 일부 구간이 개방돼있어 ESS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송전선로까지 화재가 확산돼 기존 설비가 소실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도 감사위는 공사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매도하면서 시장가격 변화 추이 분석과 판매시기 물량 조절 없이 세입확보를 위해 연 중 최저가로 형성된 10~12월에 연 전체 거래물량의 98%에 해당하는 8만1153 REC를 집중 매도해 세입실적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 감사위는 또 풍력발전기 교체·수리용역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면서 복수의 견적가격을 제출받지 않고 결정하고 있었으며, 2014년부터 4년 동안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잘못 신고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2억2819만여원을 과다하게 납부한 사항이 확인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요구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에너지공사 사장에게 행정상 10건(시정 2, 주의 6, 통보 2), 신분상 4명(주의)의 조치를 요구했다.

오은지기자

강정 마리나항 개발 사업자 공모 "어렵네"

민간대상 모집 신청 전무
크루즈시장 침체 등 영향
도, 내달 13일까지 재공고

서귀포시 강정동 인근 강정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크루즈 시장이 침체기인데다, 마리나산업이 위축된데 따른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강정항 민간 마리나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를 실시했다.

강정 마리나 사업계획(2019-2021)은 강정항 내 선양장과 계류시설 21선석, 부유식 외곽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어촌어항법에 근거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계류시설 5선석과 클럽하우스 1동, 부대시설 1식 등의 조성을 맡는다.

사업 목표는 어업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유휴어항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관광객과 연계해 해양관광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요트 수요에 적극 대처해 어촌지역 발전 및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공모 접수 건수가 전무, 사업시행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메리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도내 마리나 관련 산업이 정체기를 맞고 있다. 강정항에 입항한 크루즈선은 올해 단 2척에 불과하며, 도내 8곳의 마리나항 가운데 일반인이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곳은 김녕항과 도두항 단 2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해양레저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도내 인프라는 이를 따라잡기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사업시행자는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비의 민간투자비 36억7000만원 중 80%인 29억3600만원을 투자해야 하며, 토지 임대료도 제공해야 한다. 시행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고 2년이내 준공해야 하는 등 거액의 자본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16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강정 민간마리나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재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청이 계속 저조하면 조건을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면서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공고 제2019-1호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 경매분(소,돼지) 지육분리 및 상차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제주축협공판장에서 생산되는 경매분 돼지소 지육분리 및 상차 용역

용역사항	경매분 지육 연처리 예정 물량	용역기간	장 소	비고
경매분 지육상차용역 단가계약	약 237,500두	계약일로부터 2년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내	

※경매 상황에 따라 지육예정물량이 증감 될수 있음.

2. 입찰방법 : 단가입찰 ,일반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일시, 장소 및 내용 설명

구 분	내용설명	입찰등록마감	입찰
입 찰 일 시	2019.07.26. 오전 10시	2019.07.26. 오전 10시 30분	2019.07.26. 오전 11시
재입찰 일시 (1차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진행)			2019.07.26. 오전 12시
장 소	제주 축협 축산물 공판장 2층 회의실.		

※ 내용 설명은 입찰일에 구두 설명으로 갈음함.

4. 입찰참가 자격

가. 사업자등록증 상 지육상차용역이 가능한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낙찰후 계약서 작성시 까지 사업자등록증 상에 지육상차용역을 등록 할수 있는자로서 내용설명 청취를 필한 자.
나. 가용인원이 최소 12인이 가능한 자.
다. 외곽지(운송이 불편한 곳)운송이 가능하거나 운송회사와 연결 운송이 가능한 자.

5.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조건에서 정하는 제 조건을 수락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 중 제주축산물 공판장 경매분 소·돼지 지육분리 및 상차비 예정가격 이하 최저단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

6. 계약 보증금

계약 보증금은 금,이억원(₩200,000,0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나 당 중 도매인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정한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입찰단가 X 경매분지육연처리예정물량)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나 당 중도매인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중도매인회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중도매인회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당 중도매인회에서 정한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나 당 중도매인회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9.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중도매인회 소정양식) 1부 : 입찰장소에 비치
나.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개인) 각 1 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라. 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마. 입찰보증금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현장설명 청취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상시,우편, 전자입찰은 불가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중도매인회에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도매인회 사무실(☎064-799-1308), 중도매인회장 강영운(☎010-8660-6930), 총무 조병철(☎010-9487-0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중도매인회장

제주어 생활수기 공모

제주어를 매개로 한 문학작품의 확산과 제주어 사용의 생활화를 소망하며, 듣기 · 말하기 위주의 보전은 물론 제주어 표기의 일관성과 체계적인 쓰기를 통하여 보다 더 명확한 〈제주어 보전〉을 도모함.

응모내용 - 주제나 소재는 자유이며 자기의 삶 속에서 겪었던 희로애락 중 말하고픈 내용을 제주어를 사용하여 감동적으로 전하는 글
공모기간 - 2019년 4월 22일 ~ 2019년 9월 6일까지
응모자격 - 연령과 지역 제한 없음 (전국)
응모원고 - 4,000자 내외 (여백포함)
제출방법 - 맨 앞표지 한 장에 제목 · 연령 · 연락처 · 주소를 적어 주세요.
접 수 처 - 이메일 : jejueo2008@naver.com (※ 이메일로만 접수함)
심사방법 - 문학성
- 제주어의 점유율 (전래 제주어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 제주어 표기법(제주특별자치도 고시 2014-115, 2014.7.18. 기준) 준수 및 그 해설집 참고
- 기타 글쓰기 및 제주어 관련 요소

시상계획 - 당선(대상) 1명, 상장과 상금 200만원
- 우수상 3명, 상장과 상금 각 100만원
- 가작 6명 내외, 상장과 소정의 상금
- 입선 25명 내외, 상장과 소정의 상금
- 특별상(다문화 가족, 이주민 등) 5명 내외, 상장과 소정의 상금

기 타 - 응모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수상자는 10월 초 제주도내 일간지에 발표 및 개별 통보
- 공모전 완료 후 감동적인 삶의 모습 소개와 제주어의 홍보를 위해 '수상 작품집' 발간(1인 1편에 한함, 판권은 본회 소유)

문의전화 - 사 무 실 064) 723-2495
- 사무국장 010-3173-6291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사장 **김 정 민**

제30회 도지사배 전도검도대회 겸 제15회 도지사배 생활체육 검도대회 개최

제30회 도지사배 전도검도대회 겸 제15회 도지사배 생활체육 검도대회가 아래와 같이 열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대 회 명
제30회 도지사배 전도검도대회 겸
제15회 도지사배 생활체육 검도대회

◎ 일 시
2019년 7월 21일(일) 09:00~

◎ 장 소
제주대학교 실내체육관

◎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

◎ 후 원
제주특별자치도

◎ 참가자격
대한검도회 회원

◎ 경기구분
단체전, 개인전

※ 경기 및 심판규칙은 대한검도회 규정에 의해 진행됨

문의전화 | 전무이사 **고문찬** 010-4691-8999
사무국장 **김재현** 010-5665-6811

2019. 07. 18.

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 회장 **김 병 수**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희준은 히말라야 8,000m 10좌를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북극점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써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희준님은 지금도 히말라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7월 21일(일) 08:00**
장소 **· 야구장 앞 시계탑 집결**
· 서귀포팀 : 08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 집결

- **인 원**:선착순 40명
- **비 용**:10,000원(교통비및 산악보험)
  농협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 **준비물** :도시락,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 **산행코스**:궤물-상잣길-정자내-노꼬메숲길-궤물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고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대 산악부 가입
1999년 8월 20일 네팔 히말라야 초호유(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등정
2000년 10월 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시사팡마(8,031m)등정
2001년 4월 29일 네팔 히말라야 로체(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원2정 44일간 세계최단기록 성공
2005년 5월 1일 5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네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6년 7월 8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셔브룸 1봉(8,068m)등정
2006년 7월 31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셔브룸 2봉(8,035m)등정
2006년 9월 20일 네팔 히말라야 마나슬루(8,156m)등정
2007년 베링해협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인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체육훈장 맹호장수훈(체육훈장 맹호장 제51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 봉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사무국장(010-9838-9552)